

◇ 한국석불선양회는 5일, 천년 가까이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던 이천 아미타여래 부처님에게 예불과 공양을 올렸다. 석불선양회는 앞으로 도량에 있는 아미타여래 부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공양드리는데 등 보호에 나선다.

돌부처님 활짝 웃으시네

석불선양회 이천시 첫 친견법회 "매월 첫째 일요일 공양올려요"

"불품없는 바위 속에 원만한 모습 나타내어 천오백년 비바람 눈서리에 뜰고 활짝웃는 자비하신 상호 더욱 빛나시며, 그대 하신 그 미소가 사람으로 화현되어 무명중생 굶어 살피시는 구품도사 아미타부처님께 환희심 내어 지심정례하옵니다..."

5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한적한 야산에 있는 마애여래부처님 앞에 팔 꽃 과일 초향 등 소담한 공양물이 올려지고 발원문이 세워졌다. 사람들이 찾지 않던 아미타여래 부처님, 그 앞에서 동산불교대학 14기와 통일정사 신도 등 40명으로 이뤄진 한국석불선양회(지도법사 최혜명)는 제1회 돌부처님 공양법회를 가졌다. 소고리 돌부처님께 공양이 올려진 것이 얼마만일까? 제작시기 고고조(10세기)로 추정되므로

때문이라. 본지가 98년부터 99년에 걸쳐 지상에 연재한 '돌부처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보고 아미타 부처님에게도 공양올리자는 원을 세웠다는 해명법사는 "전각안에 봉안돼 있는 부처님뿐 아니라 들관이나 산 속에 있는 불 보살들도 모두 귀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이 행사로 인해 아미타 부처님에게도 모셔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돌부처님에 어울리게 아미타 48대 원과 아미타경을 40명이 마을을 모아 한복소리로 독송했다. 독송을 마친 후 아미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시리라 기대했다. 여래불의 은은한 미소가 더욱 활짝 피어날 듯이 느껴졌다. 문화재 전문가들이나 학생들이 연구차 찾아온 것이 아니라 원력과 공경이 담백 든 보통의 불자들이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부처님께 전해졌기 때문이라.

이제는 거조암에 봉안되어 있는 삼존불과 5백 아라한, 10대 제자와 16성을 지난 97년부터 15호 80호 120호 크기의 화폭에 유화로 그리기 시작, 총 529위를 담은 518점의 작품을 최근 완성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10개 전시실에 동시 전시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다. 후두부 수술을 받는 등 병마에 시달리던 이씨는 영산전 좌대불사가 한창이던 지난 96년 거조암을 방문, 가건물에 옮겨져 있던 나한에 압도돼 그림으로 재현하겠다는 발원을 했다. 이씨는 사찰측의 사정으로 현장 묘사가 어렵게 되자 사진자료를 토대로 하루에 1~3점씩 그렸으며, 나한상마다의 독특한 표정과 색감을 강렬하게 재현했다. 본래의 나한상에는 없던 웃음과 색감, 그리고 회노에라 등의 감정은 전적으로 영감에 의지해 표현했으며 이를 두고 이씨는 "제가 나한님을 그린 것이 아니라 나한님이 저를 통해 화폭에 나타났"이라고 말했다. (053)956-0577 이윤호 기자



병마와 싸우며 거조암 5백나한 화폭에 담았다

주부화가 이숙일씨 한 주부화가가 2년여에 걸쳐 병마와 투쟁하며 거조암 5백나한을 화폭에 담아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독실한 불교신자이자 나상회(裸像會)·일요화회 회원이었던 이숙일씨(44. 대구시 북구 대현3동) 이씨는 거조암에 봉안되어 있는 삼존불과 5백 아라한, 10대 제자와 16성을 지난 97년부터 15호 80호 120호 크기의 화폭에 유화로 그리기 시작, 총 529위를 담은 518점의 작품을 최근 완성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10개 전시실에 동시 전시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다. 후두부 수술을 받는 등 병마에 시달리던 이씨는 영산전 좌대불사가 한창이던 지난 96년 거조암을 방문, 가건물에 옮겨져 있던 나한에 압도돼 그림으로 재현하겠다는 발원을 했다. 이씨는 사찰측의 사정으로 현장 묘사가 어렵게 되자 사진자료를 토대로 하루에 1~3점씩 그렸으며, 나한상마다의 독특한 표정과 색감을 강렬하게 재현했다. 본래의 나한상에는 없던 웃음과 색감, 그리고 회노에라 등의 감정은 전적으로 영감에 의지해 표현했으며 이를 두고 이씨는 "제가 나한님을 그린 것이 아니라 나한님이 저를 통해 화폭에 나타났"이라고 말했다. (053)956-0577 이윤호 기자

봄별과 연꽃의 만남

인취사, 4월4일 백련뿌리 나눠주기 수원시민단체, 15일부터 '연꽃축제'

7~9월이면 어김없이 연꽃을 자랑하는 연꽃. 제철도 아닌 때 이른 요즘 연꽃바람이 벌써부터 불고 있다. 충남 온양 인취사(주지 혜민)는 맑고향기롭게 모임(회주 법정)과 공동으로 오는 4월4일 인취사에서 일반인들에게 백련뿌리 나눠주기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백련을 심고 가꾸면서 백련같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자는 것. 1인당 1뿌리씩 모두 3천뿌리가 제공된다. (0418)542-6441 백련은 꽃 자체가 순백색인 연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강진군 금당지와 인취사 두 곳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연꽃. 간혹 꽃잎 끝부분에 붉은 기운이 도는 것도 백련이라 하지만 인취사가 제공할 백련은 말 그대로 꽃 전체가 흰 진자 백련이다. 백련이 귀한 이유는 홍련보다 뿌리가 약해서 아무 곳에서나 쉽게 자라지 않기 때문. 따라서 인취사는 백련을 나누어주면서 백련을 기르는데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팸플릿을 백련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해민스님은 "연꽃같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갖게 됐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모두가 연꽃을 바라보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불교연합회 등 수원내 25개 불교 및 시민단체들이 모인 아름다운 수원만들기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심관·박희영)가 이달 15일부터 4월까지 여는 연꽃축제 행사를 통해 역사적 고취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 우선 15일 오후 2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수생식물 보전 및 연꽃의 생태에 관한 세미나'가 '연꽃과 한국 전통음식' '한국의 심성에 비친 연꽃' 등 6개 주제에 걸쳐 펼쳐진다. 이어 4월16일 오후2시만석공원에서 연꽃심기 행사 및 문화행사가 4월11~24일까지는 '선암스님 연꽃사건전' '무운 김기중 생애화전' 등이 수원미술전시관에서 계속된다. (0331)225-3520 한명우 기자

통일신라 대형사찰터 발굴

화순 평야지대서... '공림사' 등 새긴 기와 나와

전남 화순군 평야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진 공림사 터가 발굴돼 호남지방 불교 유적에 중요한 목록을 하나 추가하게 됐다. 전남대 박물관(발굴책임자 임영진 교수)팀은 이곳에서 '공림사'와 '능선군'이란 글씨가 새겨진 기와 조각들과 다양한 무늬의 막새기와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능선군'은 화순군 능주면의 옛 이름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공림사는 조선 태종대에 자복사로 지정돼,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지급 받았던 242개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자복사란 국가에서 사찰의 격을 평가, 직접 관리했던 조선시대의 '사찰관리제도'이다. 현지를 둘러본 한병삼 전 중앙박물관장은 "축조연대가 통일신라시대대로 올라가는 사찰이 이처럼 큰 규모로 발견된 예가 드물다"며 "완전한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림사 터는 지난 95년 국토관리청이 지표조사와 시굴 등의 절차 생략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통일유구층이 나오자, 전남대 박물관이 구제발굴에 나서 발견했다. 오종욱 기자

아이타회 장례법당 개원

대한불교법당회 녹아원이 운영하는 불교장례포교단체인 아이타상조회(회장 박형권)가 대전 유성구에 불교장례법당을 개원했다.

새로 신축된 유성포교당에 설치된 극락왕생전은 분향실, 안치실, 주방 및 식당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한명우 기자

한불청 13명에 장학금 전달

한국불교청년회(회장 김도각스님)는 1일 달마선원에서 모범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한국불교청년회 회원과 태고종 소속 승려 권속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초·중·고 대학생 13명으로 각각 30만원씩 총 390만원이 전달됐다. 이경숙 기자

'양원제 중회실시' 거듭 촉구

대한불교전국신앙인연합회는 3일 타워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2월15일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을 만나 건의했던 양원제 중회 실시, 대대면 등을 거듭 촉구했다. <본지 259호 5면기사 참조> 이날 총회에서 손현수 총재는 건강한 불교건설을 위해 조건없는 대대면 중대사태와 관련한 모든 승사를 전면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김지연 기자

의성 만장사 인근서 석조여래좌상 발견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사지)이 발견됐다. 동국대 박물관장 장중석(미술사학) 교수는 최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재 1리 화장산 7부 능선 만장사 인근에서 발견된 총높이 2.18m, 폭 1.15m(좌대포함) 석조여래좌상을 감정한 결과 통일유구층이 나오자, 전남대 박물관이 구제발굴에 나서 발견했다. 오종욱 기자

"정치인 참회하라"

종교계 총선연대 '촉구'

불교·기독교·천주교총선연대는 10일 명동성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은 더 이상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말고, 공권 부적격자들은 진실로 참회하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불교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 명진스님은 "현 시국에 대한 종교인 공동 성명서"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드리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는 이

후 민족의 분열과 불신을 고착시켜 할 수 있는 망국적 현실로 드러날 수 있기에 심히 우려된다"며 "이 땅의 부정부패와 불신의 근본 원인인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참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총선연대는 13일 명동성당, 16일 오후7시 기독교회관,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3차에 걸친 '정치개혁과 지역감정 추방'을 위한 종교인 연합집회를 개최하고 13일부터 4월12일까지 매주 월요일 교단별로 부패 정치인의 참회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태고종 북한포교기금 모금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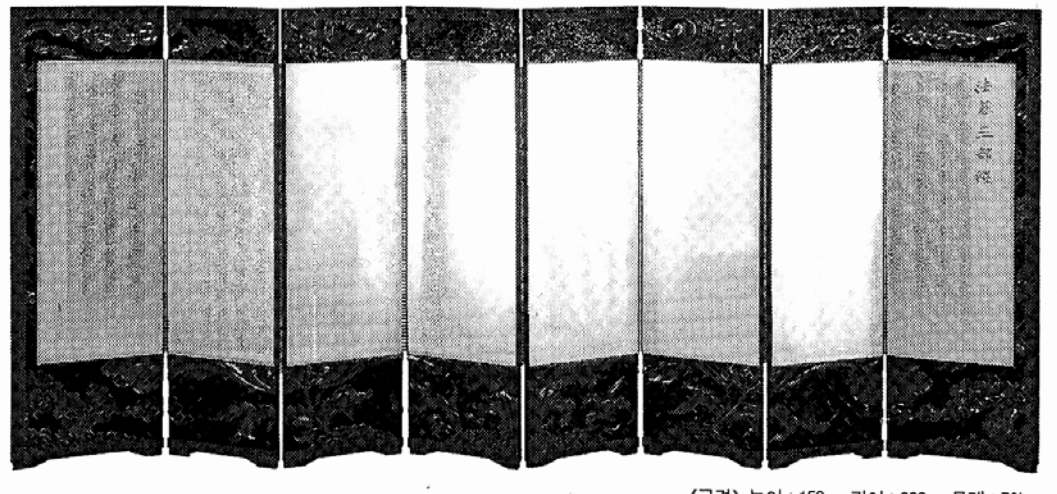
태고종이 올해 중무행정 3대 사업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포교 불사에 본격 나선다. 태고종 전국 각 시도 교구 총무원장 및 간부 스님들은 7일 중무처 설법전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총무원과 전국 2천6백여 사찰의 적극적인 동참을 받아 오는 5월 31일까지 북한불교도 돕기 및 대북포교 기금 1억 5백만원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날 스님들은 "남북불교교류

의 물꼬를 트고, 나아가 통일이후의 북한포교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불교도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성금 모금운동을 중단적으 로 적극 펼쳐가기로 했다. 이번 성금모금에는 각 교구 총무원에서 5백만원, 봉원사 5백만원 전국 교일협 5백만원 전국신도회 6백만원 등 주요 사찰과 중무원, 단체 등이 모금액을 정해 기금모금에 앞장선다. 이경숙 기자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법화삼부경 (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승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복마다 언뜻, 구름, 범룡,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승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명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보orsch마 드립니다.



<규격> 높이: 152cm 길이: 366cm 무게: 70kg

- ① 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빠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차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증환자가 건강이 점점 호전되어 낫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 ② 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성장되고 우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 ③ 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앞에서 2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 ④ 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훔치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 ⑤ 사법시험에 육년동안 실패했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 ⑥ 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 ⑦ 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 ⑧ 37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총각 한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상기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파멸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 관음회 전화: (0335) 334-9490, (0335) 334-9491 야간: (0342) 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